

세계적으로 20대 젊은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젊은이들은 성경 공부를 따분하게 여기지 않는다!’

[배경] 불과 일년 반 전에 일어난 애즈버리 대학(Asbury University)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은 전 세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애즈베리 대학의 각성 운동은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 대학에서 온 대표자들은 서울에서 열린 로잔 4차 대회에서 이렇게 보고한다.
“Z 세대의 젊은이들을 주목하라. 그 젊은이들 안에 거대한 갈망이 있다.”

2023년 2월 9일, 켄터키주 윌모어(Wilmore, Kentucky)에 있는 애즈베리 대학의 캠퍼스 채플에서 기도예배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집회는 무려 6 일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주목했다. 대체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곳, 애즈베리 대학은 아주 특별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로잔 4차 대회에서 그곳의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영적 각성운동은 자주 주목을 받았다.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Gen Z)에게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로 받아들여진다.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강한 열망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 학생운동은 애즈베리 대학으로부터 무엇

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로잔 대회 동안 애즈베리 대학의 다섯 명의 대표자들은 그들이 그 동안 함께 해왔던 일들과 그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했다. “그 각성운동은 늘 있었던 채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고, 학생들은 그 예배에 참석했고, 어떤 이들은 예배 중에 지쳐서 그들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동일한 예배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섯 명의 대표들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기도가 이어져 왔지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애즈베리 대학의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Z 세대에게 주목하십시오. 지금부터 10대들과 20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애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러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Z 세대들 안에 일어나는 거대한 갈망을 볼게 될 것입니다.”

[사진] *Francina de Pater, 국제 복음주의 학생운동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IFES)*. 사진 아래에 글은 계속 이어진다. “학생들 안에서는 순수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 학생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현상들은 젊은이들 세대라는 세대적인 이유로부터 일어난다. “국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IFES)의 이사이면서, 로잔 운동의 국제 학생 운동 위원인 Francina de Pater가 주장하기를, “다른 문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열려있다.” 그녀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학생 운동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학생 운동가인 Sarah Breuel에 따르면 요즈음 전 세계의 캠퍼스들에서 애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발견되곤 한다는 것이다.

Sarah는 로잔대회 둘째날(9월 23일)에 있었던 전체 강연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도 일어났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철야 기도 모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De Pater도 이런 현상들은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9월이면 우리는 IFES와 함께 네덜란드 학생들을 위한

‘startweekend’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 나가며, 어떻게 성경공부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에 대략 150여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세배 정도되는 45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De Pater는 요즈음 어떤 트렌드를 경험하고 있다.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성경을 구입해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 젊은 학생들 안에 어떤 순수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나 부모님들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는 참담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받아들이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공부를 전혀 지루해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성경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성경 공부에 보여 줍니다.”

롤모델이 없습니다

나아가, 애즈베리 대학의 대표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보다 앞선 세대에서 롤모델을 발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그 젊은이들은 무엇이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지 더 이상 잘 알아내지 못한다. ‘그 젊은이들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모습은 실제적이고 정결해야 하며, 주로 깨어지고 어긋난 것들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Z 세대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다섯 명의 대표자들 또한 스스로 거울 앞에서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욱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되었다. “의례적인 학문적인 경쟁을 버리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런 각성 운동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샘 김 (Sam Kim)교수는 그 기도 예배 모임에서 시간은 전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내가 시간을 확인했을 때, 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그녀의 다종교에 관한 수업을 채플 수업으로 대체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단지 5분동안은 무조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여러분들 맘대로 해도 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이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가 주위를 둘러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 무슬림 학생에게 다가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여기에 들어 왔을 때, 나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 그 후에 Kim 교수는 그와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그 무슬림 학생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타오르는 석탄

‘그 기도 예배 모임이 6일 후에 멈춘 것은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애즈베리 대학의 총장인 케빈 브라운(Kevin Brown)은 이렇게 말한다. “타고 있는 것에 불을 지피고, 가장 맹렬한 것을 태우십시오. 그러나 불은 소멸되거나 가장 작은 석탄을 태울 때 가장 뜨겁습니다. 그 석탄들은 지금 퍼져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국제적인 유동체이다. 비록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중국에서도 유학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했다. IFES의 De Pater는 이들을 기독교 신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혹적인 그룹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여러 나라들의 학생들이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는 네덜란드로 오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 학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매우 흥미롭고 새롭다.”

[사진] 로템나무 교회

유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는 고려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다. “캠퍼스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선교지는 우리의 문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로템나무 교회를 섬기는 유병용 목사님(49)의 설명이다. 이 교회는 유명한 대학 중의 하나인 고려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대학시절 동안 자신의 집과 같은 교회(Thuiskerk)로 여기고 있다.

로템나무 교회는 한국의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인 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교회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와 미국의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 교회는 이전에는 학생들을 위한 선교 단체인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의

한 공동체였다. 따라서 로템나무 교회는 개척 초기에는 대학생 선교와 교회 설립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유지했었다.

‘로템나무’라는 교회 이름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후에 휴식을 가졌던 나무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이 공동체는 처음에 이 곳을 섬겼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합동 교단 산하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자리를 잡아 갔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개척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척 교회의 모습을 잘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소개한다.

[사진: 유목사님] 서울 로템나무 교회 담임 유병용 목사.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개척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척 교회의 모습을 잘 이루어 가고 있다.’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병용 목사님은 그가 대학생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 후로 그의 선임 목사님의 인도에 잘 따라갔다. 유목사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국어로 이야기 해주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 빨랐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 후로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기술하겠다.

그가 16살이었을 때 유목사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대학 새내기 시절에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한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정확히 그 시절에 그는 CMI단체의 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한 믿음과 신앙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서 유목사님은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던 그의 고통들이 치유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 유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의 교회의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1년에는 선임 목사님을 이어서 로템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교회 사역의 초기의 몇 년 동안에는 여전히 고려대학교 CMI 대표로 섬기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열정적이다.

로템나무 교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젊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에 관한 성경과 신학 지식은 한국 장로 교회(개혁 교회)로부터 얻고 있다. 그래서 유목사는 신학 박사 학위를 얻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수학하고 싶어 한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정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로잔 4차 대회 기간에 유목사님은 4-50대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몇 십년간 한국 교회가 행했던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런 답변을 남겼다: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의 대문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